

성명서

불교부산방송을 아끼는 마음으로

1999년 1월 26일 불교부산방송 운영위원회 제2차 정기총회에서 운영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선출한 불교부산방송 지사장 선임이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됨으로써 한국불교의 맥을 잇는 부산불교의 전통과 200만 불자의 명예에 커다란 상처를 주었다. 이에 삼보 호지와 정법수호를 위한 파사현정의 결연한 정신으로 모범적 활동을 해온 신행단체 대표들이 모여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워 정법을 선양하고자 부산불자들의 요구와 결의를 천명한다.

1. 경남 함안에 소재한 마애사 주지 무진(속명: 신민호)은 조계종 승적이 없는데도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마애사라는 간판을 걸고 창건불사 중에 있다. 불교부산방송 이영구 국장은 무진에게 회유당하여, 교계지도자로서는 상당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불교부산방송 사장으로 선출할 것을 공모하여 결과적으로 불교방송의 신뢰성을 추락시켰고 본사에 보고도 없이 무단으로 태국을 여행하는 등(본사로부터 징계 받음) 불교방송의 기강을 흐트리고 있으니 이영구 국장을 즉시 해임하십시오.
2. 정기총회가 열리기 전, 1월 10일에는 류진수 사장 댁에 전화로, 1월 16일에는 이종판 사무국장이 동석한 범일동 대어초밥에서 그 뒤 진례의 류진수 사장 공장을 찾아가서 이영구 국장은 "사장님, 명예롭게 퇴진하십시오. 배종진 회장은 아태재단 부회장이며, 청와대에도 벤츠차로 무상출입하는 대단한 분이며, 불교방송에 20억원을 회사 하신다고 했고, 종금사(파이낸스) 사옥으로 방송국을 옮겨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류진수 사장님이 불교 부산 방송 창립시 8억원을 내셨으므로 10억원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배종진 회장께 말씀드렸더니, 5억원을 류진수 사장님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라고 말하였는데 과연 이것이 진실인지를 밝히시오.
3. 1월 26일 오후 3시경 롯데호텔 커피숍에서 S스님, 류진수, 배종진 세 분이 만난 자리에서 배종진 회장은 류진수 사장에게 3억원을 드리겠다"고 제의하였다. 이에 류진수 사장은 "3억원이 아니라 30억이라도 나는 받을 수 없고, 주시려거든 부산불교신도회나 범어사에 줘서 거룩한 불사에 쓸수 있도록 하십시오. 나는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류진수 사장이 배종진 회장으로부터 3억을 받았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정확하게 밝혀주시오.
4. 배종진 회장이 불교부산방송 사장으로는 결격사유가 있음이 드러나자 이를 알게 된 일부 불교 신행단체 대표들과 운영위원들이 류진수 사장에게 "불교방송을 그런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 사퇴는 무슨 사퇴냐? 만약에 일을 잘못 처리하면 류사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비난받을 각오를 해라. 이번만은 류사장이 유임되어야 한다." 라고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운영위원들은 배종진 회장의 결격사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오.
5. 3월 10일자 대한불교신문의 4단 기사보도에 따르면 자천타천에 의해 선임 사장직을 희망했던 종금파이낸스 배종진 회장이 "전임사장을 명분없이 물러나게 할 수 없으므로 서울 불교방송 이사로 모시고자 이사 출연금 3억원을 후임자의 도리로서

본인이 부담하겠다." 고 제의했다는데, 과연 불교부산방송 사장 직책을 매관매직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는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사실을 해명하십시오.

6. 지난 1월 26일 불교부산방송 운영위원회 제2차 정기총회는 부산불교계 신행단체대표(대한불교관음선행회 정금강행,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박성빈, 부산불교거사림회 서건남, 부산불교신도회 사무국장 이종판, 부산불교신도회 이사 김인대, 대한불청부산지구 청년회장 김수현)들이 참관한 가운데 공개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여기에서 만장일치로 임원과 선임 운영위원들이 선출되었기에 불교방송 사장은 즉각 이를 인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본사 사장은 제2차 정기총회가 마치 이권다툼으로 인해 문제가 있는 것처럼 회의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 조작 보고한 이영구 총괄국장에게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보고서 첨부한 테이프 내용을 공개하여 진위여부를 판명하여 주십시오.
8. 부산불교의 정신적 지주인 대한불교 조계종 제14교구 본사 범어사 주지이시며 불교부산방송 운영위원장인 성오 큰스님께 서 직접 회의를 주재하시고 또 회의 내용이 전혀 하자가 없다는 내용의 공문 뿐만 아니라 자필 소명서를 보내고 공사실에서 당부의 말씀까지도 했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승가의 청정 정신을 부정하는 일이며, 부산불자들의 전체 명예를 대단히 훼손하고 있음을 불교방송사장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9. 현재까지도 배종진 종금파이낸스 회장이 마애사 신도로서 불심이 돈독하다고 선전하면서, 불교부산방송 사장이 되어야 한다면 부산불교계를 분탕질하고 다니는 마애사 주지 무진(신민호)은 과연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그에게 매수 당한 이영구 총괄국장 등은 정법을 훼손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죄를 사대부중 앞에 공개 사죄하라.
10. 부산불교 신행단체의 대표들이 부산불교를 걱정하는 심정으로 이번 사태를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검증을 한 결과, 상기의 사실들이 틀림없음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앞으로 불교부산방송 사장은 부산불교계에서 오랜 세월동안 신행의 모범을 보인 신심과 덕망이 갖추어진 사부대중으로부터 신앙 받는 불자가 선임되어야 함을 불교방송사장님께 아울러 촉구하는 바입니다.

1999년 4월 12일

불교부산방송 정상화를 위한 신행단체 연대모임 대표 정재선 (금강행)

부산불교교권수호협의회, 부산불교인권위원회, 부산불교방송국시청자위원회, 부산불교교수연합회, 부산불교교육대학, 부산불교교육대학 총포교사회, 부산불교거사림, (재)불심흥법원, 부산불교의사회, 부산불교약사회, 부산불교문인협회, 대한불교관음선행회, 한국불교연구원 부산구도회, 부산불교운전기사회, 부산불교산악회, 부산청년불자산악회, 부산실천불교운동본부, 연꽃모임, 보현봉사회, 부산불교보현회, 부산불교교육원, 부산불교정진회, 동국불교정법대학, 불교환경통신원회, 부산불교그린봉사회, 산사선행회, 부산불교녹야회, 보훈관음회, 조계사불교대학 부산동문회, 토향회, 선정회, 대학생불교연합 부산동문회, 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 부산불교스카우트 불자회, 파라미타청소년협회 부산지부, 중학생 불교연합 지도위원회 (이상 36개 단체 무순)